

김주형 ‘파워히터 유격수’ 변신

시범경기 27타수 12안타 타율 0.444…유격수 도전 ‘시즌 기대감’

타격 “자세 바꿔 손목으로 치니 타구질 좋아져”

수비 “부족한 건 사실…공격으로 투수 도울 것”

자세 “가장으로 책임감 커…올 시즌 잘 될 것 같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주형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김주형은 KIA 팬들에게 애증의 이름이다. 고등학교 시절 만루에서 고의 사구를 얻어낼 정도로 무시무시한 타격을 자랑했던 김주형이었지만 터질 듯 터질 듯 터지지 않던 그의 타격에 ‘유망주’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유망주’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31세의 중고참 선수가 됐다.

김주형은 올 시즌 김기태 감독이 꿈은 기대주다. kt의 조범현 감독도 “김(기태) 감독이 카드 하나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한 김주형은 시범경기에서 27타수 12안타 0.444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23일 kt와의 경기에서는 안타 없이 삼진·땅볼을 기록했지만, 홈런성 타구를 날리기도 했고 잘 때린 공이 3루수의 좋은 수비에 막히기도 했다. 또 전날 깜짝 호수비를 보여줬던 김주형은 깔끔하게 병살플레이를 만들기도 했다.

그의 수비에 눈길이 가는 것은 김주형의 자리가 3루, 2루, 1루도 아닌 유격수라는

점 때문이다. 이미 1루에는 필이, 3루에는 이범호가 버티고 있어서 김주형의 자리는 좁다. 그의 공격을 활용하기 위해 김기태 감독은 유격수 김주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려 속에 시작된 그의 유격수 도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좁은 수비 폭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부족한 수비를 대신 해줄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시즌과 새로운 도전. 무엇이 달라졌을까? 일단 스윙이 조금 변했다.

김주형은 “그동안의 스윙 궤적을 그린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은 짧게 손목으로 치려고 한다. 때리려는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타구질이 좋아졌다는 느낌이다. 손목을 쓰니 예전에는 높게 뜬 타구가 밀어서 안타가 되고 땅볼 타구로 낮게 깔려 가기도 하고 타구질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진짜 변화는 마음에 있다. 불안했던 마음과 달리 지금은 “잘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책임감과 미안함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난 겨울 결혼식

을 올린 그는 가을에는 아빠가 된다. 가장의 책임감이 김주형을 더욱 묵직하게 만들었다.

김주형은 “마음 변화가 큰 것 같다. 가장이라는 것이 많이 바꿨다.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에 더 간절하게 야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투수들에 대한 ‘미안함’도 그의 마음 한곳에 있다.

김주형은 “투수들 입장에서 쉬운 타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 못 해 줄 때 미안하다. 다른 유격수들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단거리도 많이 뛰고 사이드 스텝 훈련도 많이 했지만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부리며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중해서 하자는 생각이다. 대신 공격으로 투수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 김주형의 변화. 그러나 아직 진짜 도전은 시작도 안 했다. 그는 두려움을 버리고 부상 없이 개막전을 향해 달려갈 생각이다.

김주형은 “물론 페이스가 떨어질 것이다. 그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도 예전과 달리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든다. 캠프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상 없이 다 버텼다. 마음 변화도 생겼고, 부상 조심해서 꼭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윤석민 홈런 3방에 ‘와르르’

4이닝 8피안타7실점…KIA, KT에 0-8 패

윤석민의 마지막 실전이 피홈런 3개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범경기에서 0-8 영봉패를 기록했다.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에 나선 윤석민이 4이닝 8피안타 1볼넷 3탈삼진 7실점의 부진한 피칭을 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화끈한 공세를 이어가던 타격도 주춤하면서 단 한 명의 주자도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윤석민에게는 이번이 올 시즌 세 번째 피칭. 어깨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를 완주하지 못했던 윤석민은 시범경기를 통해 실전 준비에 돌입했다. 윤석민은 첫 등판에서 2이닝, 두 번째 등판에서 3이닝을 소화한데 이어 이날 4회까지 57개의 공을 던지며 예열을 했다. 그러나 깔끔했던 시작과 달리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윤석민은 1회 작구로만 4타자를 상대했다. 빠르게 공격적으로 작구를 던진 윤석민은 투 스트라이크의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마르테에게 좌전안타를 맞았지만 탈삼진 하나 포함, 순식간에 1회를 종료했다.

그러나 변화구 가동에 들어간 2회 선두 타자 박경수와와 승부에서 볼넷을 기록했다. 1사에서 김연훈에게 우전안타를 내준

윤석민은 문상철에게 3점포를 얻어맞았다. 137km짜리 슬라이더가 그대로 좌측 담장을 넘어갔다. 작구가 눈에 익기 시작한 3회에는 김상현에게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허용했다. 그리고 4회 1사2루에서 다시 만난 문상철에게 이번에는 우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내줬다.

138km짜리 작구였다. 윤석민의 이날 작구 최고 구속은 143km. 주무기인 고속 슬라이더는 137km까지 기록했다. 57개의 공 중 스트라이크가 43개가 기록될 정도로 공격적인 피칭이었지만, 아직은 힘과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초반 선발 싸움에서 밀린 KIA는 이렇다할 공세를 펴지 못하고 9회를 보냈다. 홈까지 파고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적극적인 주루는 눈에 띄었다.

1회말 1사에서 내야안타로 출루한 윤정우가 연속 도루로 3루까지 진루했다. 그러나 홈을 눈 앞에 두고 시도한 더블 스틸이 상대 배터리에 간파당하며 실패로 끝났다. 3회말 1사에서 9구 승부 끝에 좌전안타로 출루한 김호령이 도루로 2루까지 진루는 했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5회 1사에서 김민우의 안타와 이성우의 연속 안타가 나왔고, 폭투 때 이성우가 과감하게 2



루로 향하면서 득점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도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0-8 영봉패로 끝났다.

한편 KIA는 24일 시작으로 가 롯데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오후 1시가 아닌 오후5시30분에 시작되며, 임준혁이 선발로 등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137km 던졌다?

LA 취재기자 “어깨 수술 후 가장 빠른 공”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볼펜 피칭에서 어깨 수술 후 가장 빠른 공을 던졌다.

MLB닷컴에서 다저스를 전담 취재하는 켄 거니 기자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류현진이 오늘 볼펜 피칭에서 어깨 수술 후 가장 빠른 공을 던졌다”고 전했다.

거니는 구속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제까지 알려진 류현진의 올해 볼펜 피칭 최고 구속은 85마일(137km)이다. 류현진은 작년 5월 어깨 수술 이후 총 볼펜 피칭을 6번 소화했다.

그는 지난날 19일 포수를 앉혀두고 처음

으로 공을 던졌고, 22일에는 공 30개를 던졌다. 지난달 27일 세 번째 볼펜 피칭 이후 어깨 통증으로 공을 놓은 류현진은 이달 15일에도 볼펜 피칭을 재개했다. 19일 공 20개를 던져 수술 이후 다섯 번째, 재개 후 두 번째 볼펜 피칭을 무사히 마친 류현진은 23일에는 구속을 끌어올렸다.

재활 과정에서 한 번 어깨 통증이 찾아와 뒤로 돌아간 류현진은 다시 손조롭게 제단을 밟고 올라가는 중이다.

현진 언론에서는 류현진의 복귀 시점을 6월로 예상한다. 류현진 역시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목표는 20경기·150이닝 소화”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KIA의 우타 거포 김주형이 ‘공격형 유격수’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 시범경기 10경기에서 2개의 실책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0.444의 타율로 좋은 타격을 보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LPGA서 ‘이글 이글’…태극낭자 우승 이유 있었네

장하나 6개 1위…이민지 5개·김세영 4개

올해 LPGA투어에 이글 풍년이다.

23일 현재 장하나(23·비씨카드)는 이글을 6개나 뽑아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민지가 5개, 김세영과 이미향(23·KB금융) 등 5명이 4개씩 잡아냈다.

장 하나는 지난해 6개의 이글을 잡아냈다. 벌써 작년과 같은 개수를 뽑아낸 것이다. 지난해 라운드당 0.068개 꼴로 이글을 수확한 장 하나는 올해 라운드당 0.25개라는 놀라운 이글 사냥 능력을 보였다. 산술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글을 20개 넘게 잡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세영(23·미래에셋)도 라운드당 0.2개 꼴로 이글을 잡았다. 지난해 김세영은 라운드당 0.137개 꼴로 이글을 잡고 도 이글 1위(12개)에 올랐다. 시즌 초반

이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이글이 많아진 셈이다. 이민지, 줄리아 세르가스(이탈리아), 이미향 등도 라운드당 0.2개가 넘는 이글을 뽑아내고 있다.

이글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야 한다. 그래도 이글은 실력이 우선이다. 이글을 많이 잡아내는 선수는 대개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다. 또 장타자라는 게 공통점이다. 지난해 이글왕 김세영, 김세영보다 2개 모자란 보였다. 산술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글을 20개 넘게 잡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세영(23·미래에셋)도 라운드당 0.2개 꼴로 이글을 잡았다. 지난해 김세영은 라운드당 0.137개 꼴로 이글을 잡고 도 이글 1위(12개)에 올랐다. 시즌 초반

을 올렸다.

올 시즌에는 이글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우승을 결정짓는 경우가 부쩍 잦아졌다.

김세영은 JTBC 파운더스컵에서 4개의 이글을 기록했다. 특히 4라운드 11번홀(파5) 이글은 승부에 쐬기를 박는 결정타였다. 혼다 타이랜드에서 톰프슨의 우승도 최종 라운드 10번홀(파5) 이글에서 비롯됐다. 10번홀 이글로 3타차 선두로 돌아난 톰프슨은 전인지(22·하이트진로)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 장 하나는 두번째 우승을 일궈낸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3개의 이글을 뽑아냈다. 2라운드 7번홀(파5)에서 공동 선두로 도약하는 이글을 만들었고, 최종 라운드 18번홀(파5)에서 화끈한 이글로 우승을 자축했다. /연합뉴스